

말하기수행능력강화를 위한 온라인결합 대학영어 교육과정 개발*

김혜영 (중앙대학교)**
김은주 (한양여자대학교)

Kim, Heyoung & Kim, Eunju (2010). The development of online-integrated college English curriculum for enhancing speaking performance.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3(3), 197-214.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in mandatory college English classes seems very difficult. Only a few research studies introduce college English curriculums to enhance speaking skills, and almost none of these studies reports positive results of regarding college students' English speaking ability. However, college students highly expect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the general English classes for their future need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n online-integrated college English curriculum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program goal and students' needs for enhancing speaking performance. The data analysis of a survey with 498 college students in A university shows that the students have a very low confidence in speaking and want to improve oral proficiency, but they do not spend their time and efforts on learning English. In addition, the current English courses do not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ies to develop communicative competence due to many reas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 and meet the students' expectation, this study extended class time for speaking practice and provided more authentic input by integrating online contents and system. As a result, students were able to focus more on speaking practice and to produce a lot more output. On the post-survey after the semester, most of the students in pilot classes showed satisfaction with the new curriculum and perceived the improvement of their speaking ability.

* 이 논문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09-B00037)

** 주저자 김혜영, 공동저자 김은주

I. 서론: 개발 배경

대학의 교양영어수업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의 강화는 가능한가?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영어수업에서 말하기교육에 대한 성공사례는 그리 많이 보고된 바 없다(김종국, 2006; 김희경, 2005; 박준언, 1997; 정미화, 2004; 최수영, 고연정, 백호, 2009).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나라 교양영어 교육과정은 대학별로 여러 차례의 변화를 시도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주거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더욱이 말하기가 중심이 되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과정개발연구나, 이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원인으로선 우선 제한된 시간과 여건에서 학습 성과를 올리기 어려운 영역이 말하기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의 대학에서의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을 위하여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기보다는, 원어민 교수를 확보하거나, 회화교재 중심의 원어강의를 개설하는 노력에 그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정중심적으로 말하기 수행능력의 향상시키거나,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성과없는 말하기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 대학 1학년생 498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 요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영어수업에서 기대하는 바는 단연 말하기능력의 향상이었으며, 원어강의를 듣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영어보다는 취업이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실용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는 사회적 요구의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기업체의 채용, 승진 시 요구하는 영어능력은 과거 이해력에 중점을 둔 TOEIC 점수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현장의 의사소통사용능력을 요구하는 말하기 평가로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응답자들은 이에 관련된 말하기 수행과제들에 대해서 매우 낮은 자신감을 보였으며, 스스로의 말하기 능력을 자기소개하기 등의 매우 기초적인 의사소통만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실제 졸업 후 진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능력수준과, 교양영어를 수강한 이후 성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영어능력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대학의 교양영어에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학습자의 말하기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A 대학의 교양영어 사례를 토대로 영어말하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테크놀러지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로 지칭)이 결합된 블렌디드러닝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이에 부합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소프트웨어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 A대학 교양영어수업의 진행 결과와 중간성파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커리큘럼 개발의 절차(Richards, 2001)를 따라서, A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ICT 활용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온라인 결합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상, 중, 하 수준별 8개

의 실험 반을 운영하여, 제안된 커리큘럼이 실제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관찰하고,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말하기 강화를 위한 교양영어커리큘럼 설계를 위하여 사전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대학의 교양영어수업을 통해 영어 말하기 수행 능력 향상시키기 위하여 ICT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 1)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말하기 입력(input) 과 출력(output)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 2) 영어 말하기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수업시간 및 학습량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3) 말하기 수행 능력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 4) 한 학급내의 학습자간 영어능숙도의 차이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II. A 대학 교양영어의 문제점 및 학습자 요구분석

본 커리큘럼개발 연구를 위하여 2009년 5월 A대학교에서 교양영어수업을 수강 중인 대학 1년생 약 498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학생은의 성별은 남자가 68%, 여자가 32%이었으며, 공학계가 50%를 차지하였고, 그 외 사회계(19%), 인문계(11%), 이학계(11%), 예술계(4%)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조사대상 학생의 말하기 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는 [표 1]과 같이 44.6% 가 '하'로서 스스로를 평가하였으며, '상' 혹은 '최상'이라고 응답한 학습자는 8%에 불과하였다.

[표 1] A 대학 1학년 조사대상자의 말하기 능력 자가 평가 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최하	60	12.0	12.5	12.5
	하	222	44.6	46.3	58.8
	중	157	31.5	32.8	91.6
	최상/상	40	8.0	8.4	100.0
	합계	479	96.2	100.0	
결측	결측값	19	3.8		
합계		498	100.0		

그 외 학습자들은 자신의 희망진로분야에서 영어를 '아주 많이', 혹은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5%였으며, 조금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자는 9%에 불과하였다. 즉 학습자는 현재의 자신의 영어실력이 매우 부족하며, 앞으로 희망진로분야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알 수 있는 학습자의 요구와 교양영어의 교육과정설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학생이 선호하는 교양영어수업의 유형은 말하기연습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는 수업으로 교재중심보다는 실제 영어를 활용할 상황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었으며, 수업시간에 읽기와 쓰기연습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결합 수업에 대한 선호도도 좋은 것(평균 3.3/5.0)으로 나타났다.

[표 2] 교양영어수업의 선호유형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교실수업시간은 선생님과 말하기 연습에 최대한 할애하는 것이 좋다	491	4.23	.671
기존의 교재중심보다는 앞으로 내가 영어를 사용하게 될 상황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490	4.13	.747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488	3.65	.932
문법, 어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좋다	490	3.43	1.083
숙제는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것이 더 편하다	490	3.31	1.100
교실 수업과 온라인 개별 학습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좋다	489	3.30	1.067
교실수업시간은 선생님과 읽기 연습에 최대한 할애하는 것이 좋다	491	2.82	.998
교실수업시간은 쓰기 연습에 최대한 할애하는 것이 좋다	488	2.69	1.002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 영역 중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 수업시간 동안에 다른 영역의 학습보다는 교수자와의 말하기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나머지 언어영역의 학습은 개별적으로,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하여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표 3] A 대학 1학년생의 영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일반적인 영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교양영어 수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시간투자없음	233	48.8	시간투자없음	1	.2
1시간이하	57	11.9	1시간이하	224	45.6
2시간이하	67	14.0	2시간이하	131	26.7
3시간이하	30	6.3	3시간이하	58	11.8
4시간이하	25	5.2	4시간이하	36	7.3
5시간이하	16	3.4	5시간이하	18	3.7
5시간초과	49	10.3	5시간초과	23	4.7
합계	477	100.0	합계	491	100.0

둘째, A대학 1학년생은 교양영어를 수강하기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학습시간은 매우 적으며, 그 외에 영어 학습을 위하여 별도로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72.5%는 교양영어 수업준비(예습, 과제물제출 등)에 주당 2시간 이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중 45.7%의 학생은 주당 1시간 이하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주 당 2회 출석하는 매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평균 30분 이하로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업 외에 영어 학습에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는 48.8%의 학생이 별도의 영어 학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약 80%학생이 두 시간 이하의 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A대학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영어 학습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 영어수업이 학습자의 학습량을 확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스터디 그룹 등의 방법보다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2-3시간 이상이다. 설문조사 결과 [표 4]과 같이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곳은 주로 가정이며, 하루 3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4] 학습자의 인터넷 사용 패턴

Q,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당항목 모두 선택)

방법	N	빈도	유효퍼센트
해당사항없음	231	45.4	49.4
스터디그룹	19	3.7	4.1
인터넷이용 독학	143	28.1	30.6
외국인과 회화	26	5.1	5.6
영어학원수강	35	6.9	7.5
기타	55	10.8	11.8
합 계	509	100.0	108.8

집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			학교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시간투자없음	5	1.1	시간투자없음	77	26.4
1시간이하	84	17.7	1시간이하	153	52.4
2시간이하	164	34.5	2시간이하	34	11.6
3시간이하	119	25.1	2시간 초과	28	9.6
4시간이하	42	8.8	합계	292	100.0
5시간이하	35	7.4			
5시간초과	26	5.5			
합계	475	100.0			

즉 결론적으로, A대학교 1학년생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을 통한 영어 학습은 익숙한 방법이며,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환경과 생활 패턴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대학 교양영어에 블렌디드 러닝 학습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약하면, 학습자는 말하기능력향상에 대한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교양영어를 통하여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수업시간에는 교수자와의 말하기 연습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하며, 의사소통능력에 필요한 기타 언어영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향상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은 평균 3시간 정도이며, 주로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영어 학습에 대하여 투자하는 별도의 시간은 거의 없으며, 교양영어 수업준비에 들이는 시간도 미미하여, 실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앞으로 진로에 합당한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블렌디드 러닝의 교육과정개발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온라인 결합 교육과정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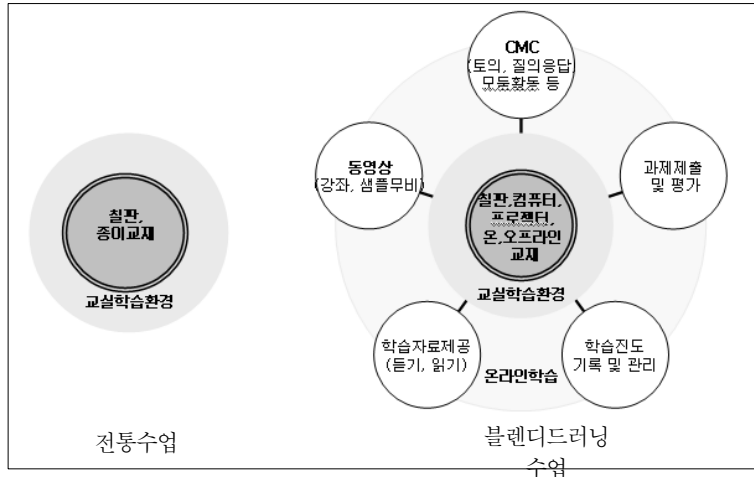
1. 영어 말하기능력 향상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의 역할

본 연구는 말하기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양영어 표준화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있어,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블렌디드 러닝이란 면대면의 오프라인 교실수업과 온라인 수업 이 결합된 두 가지 이상의 교수·학습방식을 통합하는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Driscoll(2002)의 정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맞는 학습모델(실시간 사이버강의, 자기주도 학습, 협동학습 등)의 결합이다. 둘째, 구성주의(constructivism), 행동주의(behaviorism), 인지주의(cognitivism) 같은 다양한 교수방법론의 결합이다. 셋째, 교수자 주도의 면대면 학습을 위한 비디오, CD-ROM, 화상 웹 등의 학습도구의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대학 내의 어학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설계에 있어서 블렌디드 러닝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영어 학습시간의 확대와 방법의 다각화

많은 국내외 연구(김도현 2003; 박성익, 이상은, 송지은, 2007; Driscoll, 2002; Kerres & Witt, 2003) 에 있어 이러닝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정규 교실수업에 더하여 동영상 강좌나 학습 자료의 제공, 과제의 제시 및 제출, CMC 활용을 통한 교사학생간의 의사소통, 학습자간의 협력활동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실수업과 유사한 학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같은 기간 내에 더 많은 학습시간을 확대 할 수 있으며, 학습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학습자는 수업시간을 최대한 상호적인 의사소통연습에 할애할 수 있고, 또한 교실수업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기위한

다양한 영역의 학습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전통수업과 블렌디드 러닝수업의 비교

2) 웹결합 말하기 과업(tasks)의 효과적인 설계

과업중심언어교수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에서 과업의 목표는 언어 중심적이 아니라 의미 중심적이며 과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것도 의사소통적 내용적인 측면의 결과물(outcome)이지, 언어형태 연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다(Ellis, 2003; Lee, 2000; Willis, 1996). 또한 과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협상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문제해결과 같은 인지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과업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성, 맥락화, 문화적요소 등의 고려이다. 이러한 부분은 웹을 결합한 과업으로 설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웹결합 과업은 주로 ‘CALL 과업’, 혹은 ‘온라인 과업’으로 지칭되어왔으며, Chappelle(1999)을 비롯하여 Egbert와 Hanson-Smith(1999), Healy(1999), Beatty(2003)등에 의해 실험연구, 모형연구 등이 이어져왔다. Sauro(2003)는 웹과업 설계에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CMC 과업을 유형별로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Kim(2002, 2004) 역시 CALL 과업의 특성과 준거에 맞는 온라인 과업 네 가지를 소개하고 실제 교실 내 과업으로 설계하기도 하였다.

3) 실제적 말하기 입력(authentic oral input)과 출력(output)의 강화

효과적인 말하기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실제적 말하기 입력과 출력의 기회이다(Canale & Swain, 1980; Krashen, 1985; Krashen & Terrell, 1983). 이는 말하기 교실수업에서 매우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이유로는 우선 시간적인 제약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러나 또한 교실수업에서 듣는 입력은 때로 실제성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 출력을 강화할 만한 상황이나 대상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는 온라인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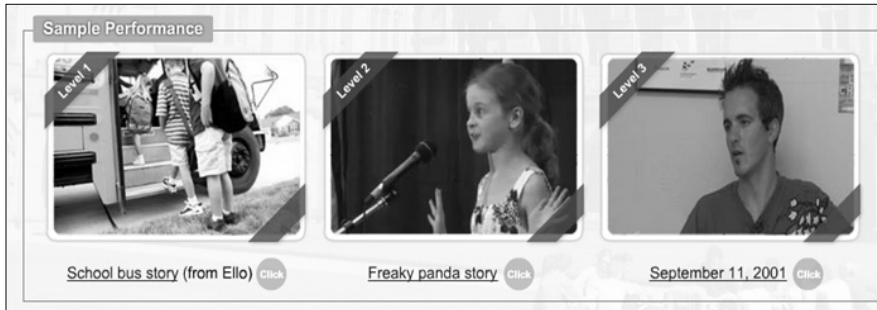
우선 입력 자료로는 내용에 맞는 TV나 영화 파일, UCC, 오디오파일, 플래쉬파일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실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용으로 제작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실제자료들을 가급적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하여 [그림 2]에 서처럼 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해야할 과업에 대한 예시를 사전에 볼 수 있고, 여기서 제시되는 언어자료를 활용하여 말하기, 듣기를 위한 반복적인 연습이 가능하다. 또한 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녹음기능, 음성인식기능과 같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연습을 하거나, 음성 및 화상교환이 가능한 CMC 도구로 학생 간, 교사와 학생간, 혹은 학생과 제3의 영어사용자간의 실제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가능하다.

4) 말하기 수행평가

말하기에 있어 수행능력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교수가 개별면접을 통하여, 혹은 수업 중 구두 발표를 채점함으로써 수행능력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기동안 여러 차례 실시하기 어렵고, 실시간이므로, 항목별 루브릭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학생 스스로 녹음한 파일을 올리게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면 실시간 테스트의 형태로 실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가자 역시 반복하여 파일을 청취할 수 있고, 저장된 파일을 다루기가 간단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시간을 낭비하거나, 별도로 상당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평가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가장 큰 강점은 학생 개별파일을 저장 보관 할 수 있어, 말하기능력 향상 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평가, 과정중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5) 강좌 내 수준별 학습의 효율적인 진행가능

월드와이드웹과 하이퍼링크기능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 수준별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김맹희, 박찬정, 2002; 김명신, 김희숙, 정성태, 2000). 첫째, 월드와이드웹의 무제한의 정보와 효과적인 링크 제시는 방대한 분량의 학습 자료를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종이교재가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온라인 교재의 강점 중의 하나이다. 학습자는 종이교재처럼 처음부터 교사의 지시 하에 순차적으로 내용을 학습할 필요 없이, 많은 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자신의 흥미와 목표에 맞는 학습 자료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수준별 자료를 제시할 때에도 간편하게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카테고리나 나누고, 학습자나 교수자가 원하는 수준의 트랙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 한 학급내의 다른 수준의 학생들도 다르게 지도 가능하다.



[그림 2] 실제적인 말하기 투입을 위한 과업 전 샘플 동영상의 예

2. 말하기수행능력강화를 위한 온라인결합 대학영어교육과정의 설계

1) 모듈 단위의 학습구성과 자료 및 평가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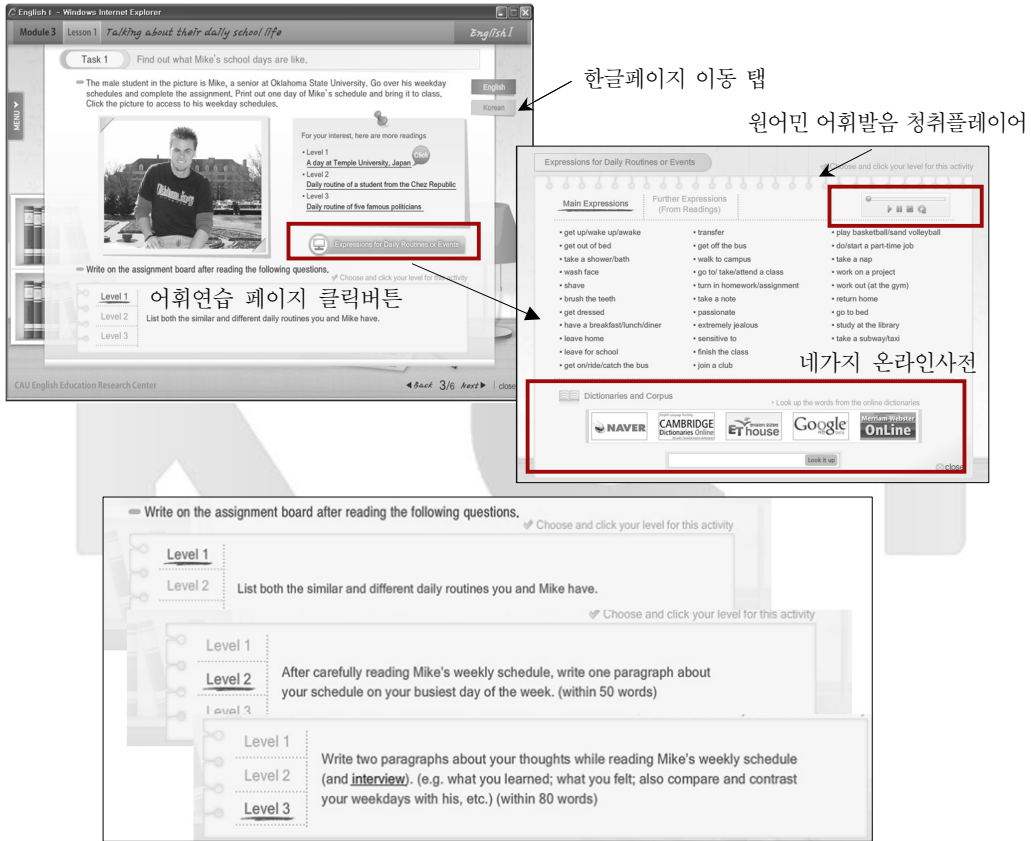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기별로 6개의 모듈과 12개의 레슨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의 기간은 1년이므로, 12개의 모듈과 24개의 레슨이 총 개발되었다. 다시 말하면, 모듈 당 두 개의 레슨이 제시된다. 개발된 교재는 종이 워크북과 온라인 콘텐츠이며, 이는 대학 홈페이지 e 클래스에 탑재되어 관리 된다. 한 모듈이 끝날 때마다 수행평가가 제시되었는데 수행평가는 녹음기를 삽입한 hml 파일로 학교 e클래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평가되었다.

[표 5]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성 및 수행평가도구(2학기 분)

방식	구성	수량(개)	내용	개발방법
온라인	Module (Lesson)	12 (24)	한 단원 당 총 6개의 페이지로 4개의 과업으로 구성	html, 플래시, 원어민 음성녹음, 자동채점
	수행평가	12	한 모듈 당 1개의 수행평가 제시, 문제와 답안준비 메모장, 음성녹음기로 구성	html, 플래시, 음성녹음기, 메모장
오프라인	워크북	2	한권당 한학기 분량의 내용이 구성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4개의 온라인, 오프라인 과업을 소개)	제본된 컬러인쇄 책
	교사용 지침서	2	핸드아웃, 답안지, 듣기자료 스크립트	종이 인쇄본
	실러버스	2	학기별 교수요목(목표, 평가방법, 수업일정 소개)	종이 인쇄본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는 매 차시별로 e-강의실(e-class)를 통하여 제공되며, 상, 중, 하의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학습자를 위한 여러 가지의 스캐폴딩을 시도하였다. 첫째, 상,

중, 하로 나누어진 온라인 과제는 별도의 html 페이지로 구성하고, 이를 탭 키를 이용하여 쉽게 이동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과업에 단계의 복잡성을 구별한 세 수준의 과제를 학습자가 선택적으로 학습가능하다. 둘째,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영문 해석이나 단어의 난이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하위 학습자들을 위하여, 모든 과제는 한글 해석화면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셋째, 어휘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의 온라인 사전을 제시하고, 말하기 과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어휘목록에 대한 발음연습용 청취플레이어를 별도로 첨부하여 원어민의 발음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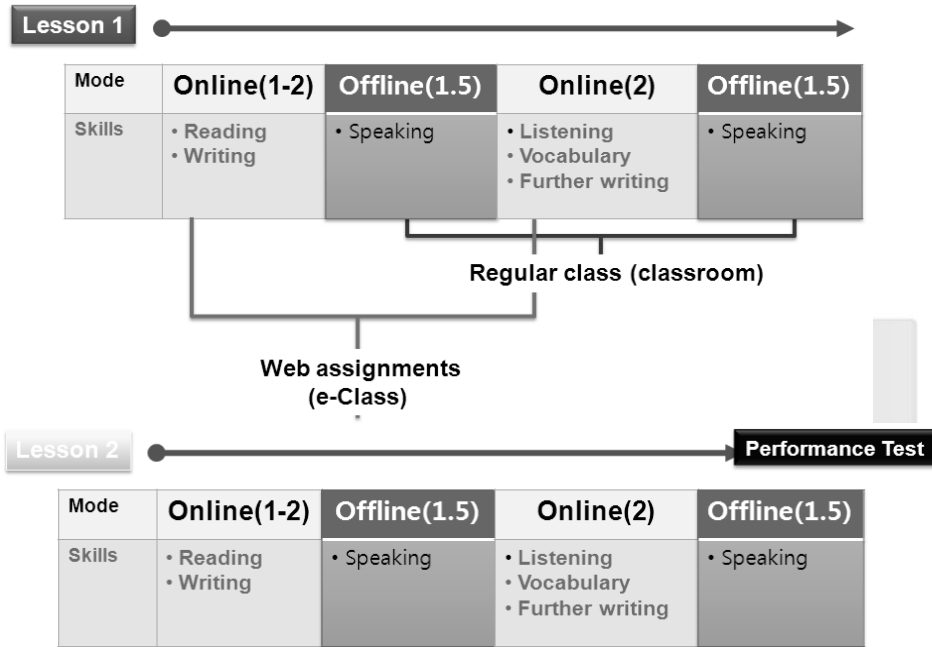


[그림 3] 읽기, 쓰기 과업(좌) 어휘화면(우) 화면과 수준별 쓰기과제(아래)의 예

2) 수업시간의 확대

우선 새로운 온라인 결합 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기존의 오프라인의 수업 주당 3시간과 온라인 학습과제 약 3시간을 합하여 총 6시간, 즉 두 배로 확장되어, 말하기 연습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학습시간의 주당 구성은 [그림 3] 과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실 수업 전 e-강의실에 출석하여, 온라인 과제를 사전에 마치고 난후, 그 주 첫 번째 교실 수업에 출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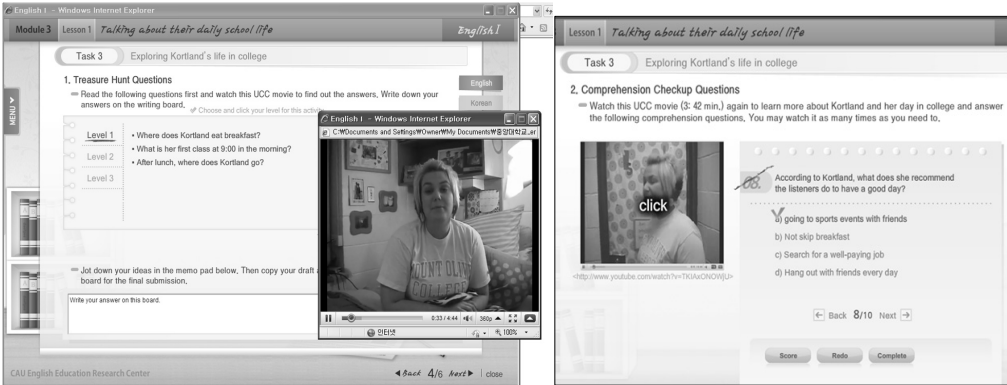
다. 첫 번째 교실 수업 후에는 다시 온라인 과제를 가정에서 개별 학습하여야 한다. 이후 두 번째 교실 수업은 두 번째 온라인 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모듈이 끝나는 두 주째 마지막 주말에는 수행평가가 진행된다. 각 온라인 과제별 예상 학습소요시간은 1.5 시간이며 수행평가 소요시간은 20분이다. 그러므로 수업이 예상과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면 A 대학 학습자는 최소한 6~6.5시간의 영어 학습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림 4] 온라인결합 교육과정의 모듈당 수업 구성 (2 주분)

3) 언어의 4기능 학습을 위한 온라인 결합 과업을 제시

[그림 4] 보는 것처럼 온라인 결합 새 교육과정에는 언어의 4기능의 연습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말하기과제수행과 형태연습(drill)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첫째, [그림 3]에서와 같이 우선 읽기, 쓰기과업으로 수업시간에 할 말하기 과업의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때, 샘플 동영상, 관련 웹사이트, 어휘학습자료, 말하기와 동일한 쓰기과제가 제시되어, 실제적인 입력(authentic input)을 충분히 하고, 또한 출력의 사전연습을 하도록 한다. 둘째, 수준별 온라인 듣기과제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구두입력과 내용학습을 강화한다. 이때에도 과업과 관련된 UCC 동영상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제 과업에 필요한 표현이나 내용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듣기자료에 대한 과업역시 상, 중, 하로 나누어 수준별로 제시한다. 동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자가평가를 하기 위하여 듣기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자동채점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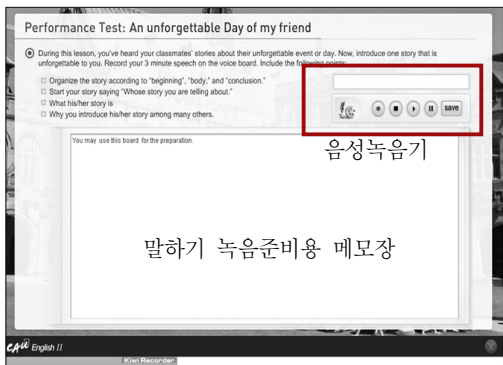
[그림 5] 온라인 듣기과제 예시: 보물찾기(좌) 청취연습 문제풀기(자동채점)

4) 온라인 말하기 수행평가의 실시

녹음기 솔루션을 삽입한 시간제한 말하기 수행평가를 매 모듈이 끝날 때 마다 제시하여 한 학기 간 총 6회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교 교실수업시간이나, 교수자의 개인면담을 통한 말하기 평가의 시간소비나, 번거로움을 피하고, 모듈의 수행과제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강의실을 통하여, 가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였고, 교수자 역시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학생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수행평가는 그 주의 모듈에서 학습한 말하기 과업과 유사한 내용의 과업을 제시하여, 20분간 준비를 한 후 약 2분간 녹음을 하도록 하였다. 수행평가 파일은 저장하여, 과제별로 다르게 제시된 수행평가 루브릭에 근거하여 전체 수업평가에 반영하였다.

5) 학습 진행의 효율적 관리

온라인 결합 과제를 담은 콘텐츠 등은 모듈별로 학교 학습운영시스템(LMS)에 탑재시켰다. 학생들은 이 e-강의실을 통하여 온라인 과제를 제출하고, 학습하였다. LMS에는 학습자의 출결, 학습 진도상황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과제물 평가 및 수업참여 등의 온라인 학습 성실도



[그림 6] 온라인 말하기 수행평가(좌)와 수업용 e-강의실(우)의 예

를 정확히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교수자 역시 모든 반이 동일한 내용이 같은 차시에 제시되고, 같은 과제와 같은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있어,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IV. 온라인 결합 말하기 교육과정의 적용 및 성과

1. 교육과정 시범 적용

새로 설계된 교육과정은 2010년 3월 1학기에 A대학 1학년생 8개 반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0년 9월 2학기에 동일한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적용 중이다. 이들 실험대상 학생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7] 실험 반 학생 정보 (1학기)

반명	전공계열	영어능력	학생 수
1	사범	중상	12
2	사범	중상	14
3	정경	중	11
4	정경	중	12
5	외국어	중	18
6	자연과학	중하	19
7	예술	하	20
8	예술	하	18
합계			124

새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학급 수 정원을 최대 20명으로 배정하고, 사전진단평가를 하였으나, 이와는 상관없이 반별로 배정하였고, 이중 몇 개 중 상위 반 영어 우수 학생들은 교양영어 수업을 면제 받았다. 따라서 면제 받은 학생이 받은 학급은 학생 수가 적게는 11~14명 정도였고, 면제가 없는 학급은 18~20명 선이었다. 사범계 중상위 두 개 반 학생은 원어민 교수가 수업을 하였고, 정경계열 두 개 반은 이중 언어 구사자인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4개 반은 한국인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2학기 역시 동일한 구성과 인원으로 8개 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사후 설문조사 결과

한 학기를 마친 후 중간점검을 위하여 간략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업만족도와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향상 정도, 말하기 연습시간의 향상 정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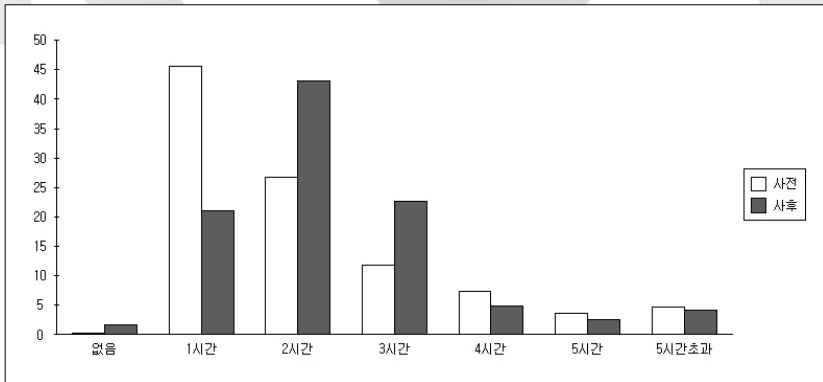
1) 영어학습량의 증가

한 학기동안 학생들의 영어평균 학습시간은 주당 2-3시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65.8%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 설계 시에 기대한 3시간이상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34.2%였다. 그러나 사전조사와 비교하면, [표 8]과 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학습량인 상당수의 학생들이 평균 3시간이상의 학습량에는 다소 못 미치나, 온라인결합 교육과정 적용 전 대학영어 수업을 준비하던 학습량보다는 많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 영어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의 변화

교양영어 수강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	사전		사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시간투자없음	1	0.2	2	1.6
1시간이하	224	45.6	26	21.0
2시간이하	131	26.7	53	43.1
3시간이하	58	11.8	28	22.7
4시간이하	36	7.3	6	4.9
5시간이하	18	3.7	3	2.5
5시간초과	23	4.7	5	4.1
합계	491	100.0	1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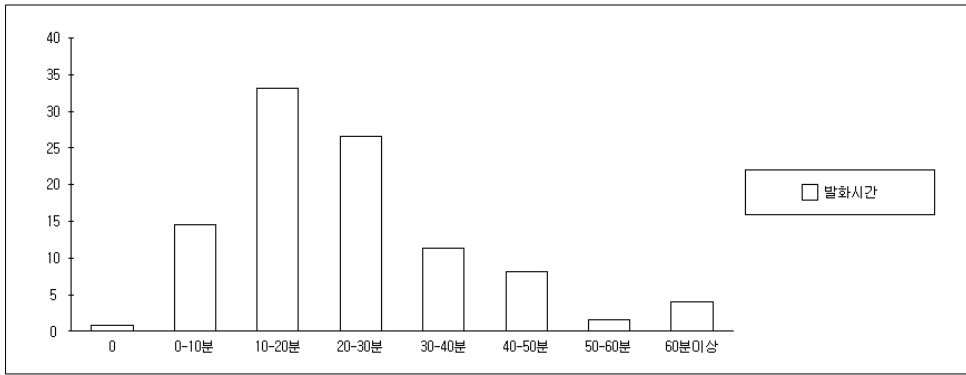
Q. 내가 교양영어 수업 준비를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제포함)은 _____ 시간 이다.



2) 수업 시간 내의 발화량

학생들이 교실수업 75분에서 개별적인 말하기를 하는 시간은 33.1%의 학생이 '10~20분 정도' 이라고 말하였고, 26.6%의 학생이 '20~30분 정도' 라고 말하였다. 그 외에도 30~40분 정도라고 대답한 학생은 11.3%, 40~45분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8.1%나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적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Q. English I 교실수업에서 75분간 말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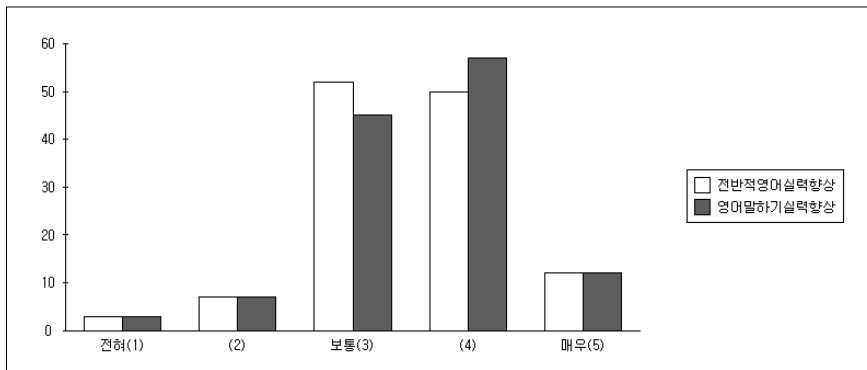


3) 학생 스스로 느끼는 영어능력 향상도

한 학기를 마친 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새 교육과정의 영어수업이 자신의 영어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전반적인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9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자신에게 ‘상당히’ 혹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표 9] 학생 스스로 느끼는 실력향상정도 (영어실력전반 vs. 영어말하기능력)

구분	수업이 전반적 영어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수업이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3	2.4	3	2.4
2.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음	7	5.6	7	5.6
3. 보통	52	41.9	45	36.3
4. 상당히 도움이 되었음	50	40.3	57	46.0
5. 매우 도움이 되었음	12	9.7	12	9.7
합계	124	100.0	124	100.0
척도 평균값	3.548			



하는 학생도 절반이상(50%)이었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은 수강생들에게 상당한 만족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 말하기 실력의 향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이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말하기 능력에 ‘상당히’ 혹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학생은 55.7%로 전반적인 영어실력보다도 말하기에 대한 향상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커드 척도 평균값을 보면 전반적인 영어실력향상에 대한 질문에 3.45, 영어말하기 실력향상에는 3.548로 나타났다.

V. 토의 및 결론

새 교육과정을 도입한 기간이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체 두 학기 분의 교육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성과나 효과성을 판단하기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선은 순환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므로, 중간시점에서 발전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서 밝혔듯이 대학영어교육에 있어 말하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대학 교양영어수업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교육과정에 온라인을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전에 도출되었던 주요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더 본질적인 학생들의 영어말하기 능력의 향상, 과제수행의 자신감 등은 전체 교육과정을 1년간 적용한 후 체계적인 말하기 수행능력 테스트 등을 통하여 검토해볼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선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말하기 연습기회가 확대되었다.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과제, 수행능력 평가 등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은 수업준비를 위하여 과거보다 주당 평균 2~3시간 정도의 시간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므로, 학습량이 증가하였고, 수업시간에도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개인적인 발화시간이 30분이상이라고 응답하였던 것은 새 교육과정의 분명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실력 향상에 적절히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요구분석을 통한 과제의 설계, 언어의 네 기능을 균형 있게 연습시키는 수업구성, 효과적인 교실 수업시간의 활용 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결합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 앞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영역별 테크놀로지 활용방식의 적절성, 사용자편의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녹음기와 같은 솔루션을 수행평가의 평가도구 설계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사용상의 어려움과 작동의 오류 등이 제기된 바 있었다. 둘째, 학생사용자가 자주 사용한 기능과, 잘 사용하지 않은 기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수준별 샘플 과제동영상, 온라인 영어사전, 원어민 어휘 발음샘플, 우리말 번역, 추가읽기자료의 제공, 세 수준으로 분류된 과제, 듣기연습 등 과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기능과 자료 등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유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결합 과제와 웹 실제 자료의 난이도와 적절성 (특히 언어습득의 측면에서) 에 대한 검토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과제와 자료가 상당부분 수준별로 제공되었음에도, 실험반의 영어수준에 따라 이들의 난이도는 매우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온라인결합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훈련이다. 교사들의 교육과정의 분명한 이해와, 준수가 성과와 직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사용, 학습운영시스템의 사용 및 관리 등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도현. (2003). Blended Learning 출현배경과 개념적 의미. *산업교육*, 3, 54-57.
- 김맹희, 박찬정. (2002). 웹기반 수업에서 혼합형 수준별 수업모형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과학회 봄 학술발표논문집*, 29(1), 685-687.
- 김명신, 김희숙, 정성태. (2000). 수준별 교육을 위한 웹기반 교수학습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과학회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27(2), 565-567.
- 김종국. (2006). 대학 교양영어 인터뷰 평가의 타당성 연구. *영어학*, 6(1), 179-200.
- 김희경. (2005). 원어민 교수자의 대학교양 영어회화 보조로서의 블렌디드 학습 사례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47(3), 159-182.
- 박성익, 이상은, 송지은. (2007). 블렌디드 러닝에서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 강좌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5(1), 17-45.
- 박준연. (1997). 원어민 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의 운영결과분석. *영어교육*, 52(1), 161-183.
- 정미화. (2004). 경상대학교 교양영어 교과서 생활영어 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영미어문학연구*, 20(2), 161-185.
- 최수영, 고연정, 백호. (2009).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이 영어 말하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2(3), 229-255.
- Beatty, K. (2003). *Teaching and researching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Essex, U.K.: Pearson Educatio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hapelle, A. C. (1999). Theory and research: Investigation of "authentic" language learning tasks. In J. Egbert & E. Hanson-Smith (Eds.), *CALL environments* (pp. 101-115). Alexandria, VA: TESOL.
- Driscoll, M. (2002). Blended Learning. *E-learning*, 3(3), 54-56.
- Egbert, J., & Hanson-Smith, E. (Eds.). (1999). *CALL environments: Research, practice and critical issues*. Alexandria, VA: TESOL.
-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aly, D. (1999). Classroom practice: Communicative skill-building tasks in CALL environments. In J. Egbert & E. Hanson-Smith (Eds.), *CALL environments* (pp.

- 101-115). Alexandria, VA: TESOL.
- Kim, H. (2002). Web-integrated reading instruction: An idea for reading strategy practice.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5(2), 83-102.
- Kim, H. (2004). Online L2 tasks: Analysis and application.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7(2), 83-102.
- Kerres, M., & Witt, C. D. (2003). A didactical framework for the design of blended learning arran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28(2-3), 101-103.
- Krashen, S. D.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New York: Longman.
- Krashen, S. D., & Terrell, T. D.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Lee, J. (2000). *Tasks and communicating in language classrooms*. Boston: McGraw-Hill.
- Richards, J. C.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uro, S. (2003). *Exchanges in cyberspace: CMC tasks for the networked classroom*. Paper presented at WorldCALL, Banff, Alberta, Canada. Retrieved September 21, 2005, from the World Wide Web: <http://dolphin.upenn.edu/~Etotoro2/CALL/call.html>.
-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Harlow, UK: Longman Addison-Wesley.

Keywords: blended learning, online-integrated curriculum, college English, curriculum design

Applicable levels: college education

Authors: Kim, Heyoung (Chung-Ang University, 1st author); englishnet@cau.ac.kr

Kim, Eunju (Hanyang Women's University, 2nd author); exk188@gmail.com

Received: September 30, 2010

Reviewed: November 10, 2010